

# 대주단 1차 가입 24곳 심사 착수 건설사 구조조정 본격화

대주단(채권단) 협약 가입을 신청한 건설업체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큰 곳은 은행들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차로 가입한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했지만 채권단의 심사 결과 회생 불능으로 판정돼 가입을 거절당한 업체는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 지원 대신 자산매각 등 요구 미신청 업체엔 대출금 회수 압박

은행들은 계속 신청을 못거리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만기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대주단 가입심사 착수... 선별 자금 지원> = 은행들은 24일까지 1차로 대주단 협약에 가입 신청을 한 24개 건설사를 심사해 가입이 결정된 곳에는 최장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고 신규 자금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은 습

이 붙어 있는 업체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그 중에 회생 가능성이 큰 곳에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주단 협약의 목적이 건설사 지원에 있는만큼 신청업체 대부분을 받아준다는 입장이지만 부실이 심각한 업체는 경우 탈락 가능성도 있다. 심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지만 은행들이 거래 건설사의 재무·경영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일부 은행은 기본적인 평

가를 이미 헤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7-10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은행은 건설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채무상환 유예 만으로 회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주단 가입 업체에 신규 대출을 해줄 때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만 받고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1차 가입업체 인센티브> =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대주단 협약에 1차로 가입한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주단 협약은 과거 워크아웃과 달리 '프리 워크아웃' 성격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24개 건설사가 가입한 것과 관련, "10대 건설사를 포함해 많은 건설사

가 가입하면 외부에서 국내 건설시장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주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적정한 숫자가 신청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신청 건설사 대출금 회수... 가입 압박> = 은행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1차 마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때 원칙대로 대출금의 20% 상환을 요구하는 등 가입을 압박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 응하지 않은 건설사에는 만기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이 나서기 전에 제2공원에서 먼저 회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대주단에 안 들어오는 건설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회생)에 들어가거나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조선업 내년 수출 500억弗 돌파

## 사상 처음... 전체 수출 품목 중 1위 차지 선박 국산화율 90% 육박 호실적 예상도

조선경기의 후퇴와 일부 업체들의 자금난 등에도 내년 조선업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 500억달러를 넘어 전체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업계 내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선협회는 최근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수출액이 올해보다 23% 증가한 5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올해 1~9월 석유제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던 선박 수출액이 내년에는 전체 수출액 중 11.1%를 차지해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으로 조선협회는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까지 품목별 무역수지 1위를 달성한 조선업은 선박의 국산화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이 같은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조선협회는 예상

했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시장 급락으로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과다하게 부각된 것"이라며 "건설한 조선사들은 경영상 문제가 전혀 없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납기가 지연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체들은 향후 3~4년치 물건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수출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은행연합회장 "조선업 등 적기 지원 검토"

신동구 신임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5일 경제단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찾아 은행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0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취임식에서 "연합회는 실물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

면서도 신용도와 직결되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원은행과 정부 당국이 긴밀히 협조해 경제도 살리고 은행도 살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세우고 조기에, 과감히, 충분한 규모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주도적

진해야하며 은행권도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경영합리화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보험업법 개정 논의,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상품 판매업 도입 논의 등에 대해서도 입법부와 관계를 강화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코스피 소폭 상승 환율도 10원 하락

뉴욕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25일 국내 주가는 소폭 상승한 반면 환율은 조금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18포인트(1.36%) 오른 983.32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2.89포인트(1.02%) 오른 287.39에 장을 마쳤다. 뉴욕 증시가 미국 정부의 씨티그룹 구제 결정으로 금융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있는 데 힘입어 이틀째 폭등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관은 1천185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외국인들은 이틀째 '팔자'에 나서 669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개인도 467억원을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0.70원 하락한 1,502.30원으로 거래를 마쳐 1,500원대를 이틀째 유지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색향토 제품 선물 하세요 25일 서울 GS유통센터 명동점에서 열린 오리엔탈 에코 뷰티 브랜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오색향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쌀 가공식품 시장 2조 규모로 늘린다

## 남는 쌀 해결... 2012년까지 대형 수요처 개발

정부가 밀 등 수입곡물 수요를 줄이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시장을 본격 육성한다. 농식품부가 25일 발표한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식업체와 연계한 대형 수요처 개발과 쌀가루 등 원료 공급지원 등을 통해 현재 1조원 수준인 쌀 가공산업 규모를 2012년까지 두배인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목표대로 쌀 가공식품수요가 확대

될 경우 밀 수입대체만으로 한해 550억원의 수입비용이 줄고, 현재 남아도는 의무수입(MMA)쌀과 공공비축미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낮아져 660억원의 재정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2~3년 이상 보관한 재고 공공비축미를 일반시중 국산쌀의 70% 수준 가격에 국수·떡 등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공공비축미라도 여전히 수입쌀보다는 비싸지만, 수입쌀을 꺼리는 소

비자들의 인식 때문에 조금이라도 싼 값이라면 공공비축미를 찾는 업계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중앙가격적으로 정부는 현재 한해 10만 정도 쌓이는 공공비축미 재고를 모두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아울러 MMA 물량 가운데 일부를 수요가 많은 찰쌀로 들여오고, 쌀 전분 제분업체를 육성하며, 올해부터 시작한 쌀곡수용 수입쌀 환인 공급사업도 2010년까지 계속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 올해보다 11% 늘어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2조3천억원으로 올해(11조1천억원)보다 10.8% 늘어나고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에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제3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8월22일 국무회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을 확정함에 따라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2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연도별 실천계획으로 마련한 것이다. 부처별 R&D 예산은 지식경제부가 3조9천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부 3조8천684억원, 방위사업청 1조6천209억원, 국토해양부 5천368억원, 중소기업청 4천870억원, 농촌진흥청 4천291억원, 보건복지가족부 2천291억원 순이다. '577전략' 중 7대 R&D 육성에 4조6천282억원이 투자된다. 우주·항공, 원자력·핵융합, 국방 등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에 2조1천176억원, 인수공통전용병, 부품·소재 등 현안 관련 특정분야에 8천34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신

성장동력 발굴·육성분야에서는 그린카·로봇·바이오신약·태양전지 등에 8천421억원, 디자인·콘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 등에 2천813억원 등 모두 1조1천923억원이 투자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올해 1조812억원에서 1조3천297억원으로 늘어난다. 원자력·핵융합 기술에 4천580억원,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에 4천163억원,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2천587억원이 배정됐다. '577전략' 중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에도 올해(2조8천293억원)보다 28.1% 늘어난 3조6천257억원이 책정됐다. /연합뉴스

# 내년 R&D 예산 12조 3천억원

## 펀드 부실 판매 3회째 자격 영구 박탈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앞으로 펀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며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송경철 금융감독 부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펀드 판매액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투자실명서 미교부, 실명업무 위반 등을 점검하고자 기획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원장은 "검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관련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원은 자산운용협회와 협력해 판매인력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쳐 불완전판매 인력의 자격정지 처분을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지기간을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도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했다. /연합뉴스

## 그린벨트 내 수출 공장 30일부터 증축도 가능

그린벨트내 수출공장의 증축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해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수출공장인 경우에는 현재 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면적의 2분의 1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20만2천여㎡인 소하리공장은 10만1천여㎡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수출공장에 대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증축을 허용해왔으나 1984년 이후에는 전면 불허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을 '그린벨트 지정당시 시설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시설면적 만㎡'로 변경했다. 지정당시 연면적이 300㎡인 공장이라면 지금은 450㎡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연합뉴스

## 11월 경상수지 흑자 10억달러 안팎 예상

기획재정부는 25일 "11월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의 개선 추세를 고려할 경우 1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월간 무역수지 동향에 대한 이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1월에도 최근의 수출입 추세를 감안할 경우 마지막 10일간 40억 달러 안팎의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11월 1~20일 무역수지는 42억8천만 달러 적자인 상태다. /연합뉴스

## 다단계 판매원 허위모집 금지

허위사실로 유인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에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26일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대학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허위사실로 유인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무화,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알 낱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화천기공(주)	인턴 및 경력사원 채용(경영/공학/기계/전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6	062-950-1521
롯데리아 상무점	[롯데리아 상무점]메니저 및 아르바이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7	062-381-3812
느낌하나	경영 관리 보조해줄 임원(비서/여성)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27	062-575-3391
오페라힐링스피츠스포츠센터	[정규직]인내데스크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7	062-956-9405
노블모터스(주)	인턴/파트 공시딜러 노블모터스 S/C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62-363-7000
인스피티(주)	총무 업무 경력직 여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1/28	070-7829-0722
인아정밀(주)	납품 차량 운전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28	062-954-1050
명광시무기(주)	컴퓨터 OA(신도리코) A/S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11-609-6323
ok웨딩클럽 광주센터	[OK웨딩클럽 광주센터]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223-0805
(주)우리	태양광 발전소 전기 기술자	고졸/경력4년	2400~2600	11/30	062-361-7106
대일하이텍(주)	배송, 매장, 영업관리 담당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01	061-244-2757
㈜그린벨	KTF 서광플러자 정규직 상담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1	042-223-4900
변지유 뷰티	패션디자이너 경력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2	062-222-720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